

개교 70주년 기념 서울대학교 역사 전시 - 간호대학 전사(前史) 게재

서울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행정관(대학본부) 로비를 새롭게 단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2016년 3월 공개했다.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는 서울대학교의 70년을 한 눈에 보여주는 '역사존', 우리 대학에 기부한 분들을 기념하는 '기부존', 캠퍼스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존'이 만들어졌다. '역사존'에서는 서울대학교 역사를 개교 이전의 전사(前史)를 포함하는 8개의 시기로 표현하였다. 1946년 개교, 1950년 전쟁, 1960년 4.19혁명, 1975년 종합화, 1987년의 민주화, 1995년 이후 국제화, 2012년 법인화를 통한 자율성 확보 등이 역사의 획을 긋는 사건으로 제시되었다. 1946년 이전 역사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법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만 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간호대학의 전사(前史)인 "1907. 3. 10. 대한의원 교육부에 2년제 산파 및 간호부양성과 설치"를 표기하게 되었다.



이번 간호대학 전사(前史) 게재를 통해 서울대학교 간호교육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우리 민족의 격변기를 함께 해온 간호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2016년이 되길 기대한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동상 이전

2016년 3월 22일 간호대학 앞 잔디밭에 '나이팅게일 선서식' 동상을 이전 설치하였다. '나이팅게일 선서식' 동상은 동쪽과 남쪽을 바라보는 두 명의 간호학생이 촛불점화 의식을 통해 선배로부터 간호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모습의 작품이다. 2002년 동상 제막식 당시에는 '나이팅게일 선서문'과 함께 간호대학 본관 진입로에 위치해 있었는데, 간호대학 건물 옆에 의과대학이 건축되면서 후방으로 밀려나게 되어 2016년 봄 간호대학 잔디밭 앞으로 옮겨 세웠다.

이 '나이팅게일 선서식' 동상은 최인수 교수(전 서울대학교 미대학장)의 작품으로, 동쪽과 남쪽을 바라보는 간호학생은 밤과 낮을 지키는 간호를 상징한다고 한다. 간호정신을 되새기고 간호의 가치를 이어가는 간호대학의 테마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윤순녕 교수 : 40년 장기근속 표창 수상

윤순녕 교수가 2015년 10월 14일(수)에 개최된 제 69주년 개교기념식에서 40년 장기근속 공로 표창을 수상하였다. 교수, 직원,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개교기념식 행사에서는 장기근속한 교수 및 직원, 그리고 봉사우수학생(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등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윤순녕 교수는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교수로 42년간 본교에 재직하면서 후학양성에 힘써 왔으며,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회장, 한국산업간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2001년에는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6년 2월 29일 정년퇴임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이인숙 교수 :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취임

2016년 1월 1일 이인숙 교수가 한국간호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인숙 교수는 2015년 12월 17일 제 45회 한국간호과학회 정기 총회 및 임원 선거에서 본 학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한국간호과학회는 1970년 창설되어 현재 3,400여명의 간호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술연구단체로, 회원의 구성은 133개의 간호교육 기관 및 간호학 관련 연구소에 재직 중인 교수를 위시한 연구원 및 간호계의 지도자로 되어 있다. 한국간호과학회는 간호학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간호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의 신기술 개발과 주요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타 학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간호학의 연구 활동, 국내 및 국제 학술 유관기관과의 교류, 8개 회원학회의 활동지원, 간호실무 발전을 위한 이론 및 기술 개발, 간호학자의 연구 활동 지원, 간호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 학회지 발간 및 출판 사업 등이 있다. 한국간호과학회는 성인간호학회, 아동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 여성건강간호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 기본간호학회, 간호행정학회, 기초간호학

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학회지 발간 등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이인숙 교수는 학회 임원진들과 함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와 간호교육을 재검토함으로써 간호과학의 개혁을 이루기 위한 기본을 점검하고, 방향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인숙 교수는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임상건강증진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에 열린 지역사회간호학회 국제학술대회(ICCHNR) 조직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재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2008년 녹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박현애 교수 : 제 8회 우수간호과학자상 수상

간호정보학 전공 박현애 교수가 한국간호과학회에서 선발하는 제 8회 우수간호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간호과학회에서는 간호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한 학자를 선정하여 우수간호과학자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2015년 12월 4일 제 8회 간호과학자상 선정위원회에서 한국간호과학회 간호과학자상 심사 및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심의한 결과 박현애 교수가 제 8회 우수간호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박현애 교수는 2015년 12월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국간호과학회 제 45회 정기총회 시상식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였다.

박현애 교수는 1980년 본교를 졸업한 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박사학위(보건통계/보건정보)를 취득하고 1992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신임교수 소개 : 강자현 교수 (성인간호학)

이른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되는 강의와 실습을 하던 간호대학생 시절, '전문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문간호사 실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심장내과에서 나이트근무를 하며 CPR 등 여러 긴급한 상황에 마음을 졸였던 신규간호사 시절과 병원감염 유행 조사 등 감염관리 업무에 매료되어 매일매일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보람을 느꼈던 전문간호사로서의 임상경험은 제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30대 중반, 더 늦기 전에 박사과정에 도전해보자며 오픈멤버로서 모든 열정을 바쳤던 분당서울대병원을 그만둘 때의 막막함은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영예로운 5년 Royster Fellowship을 받아 걱정 없이 박사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합격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외로운 미국생활과 박사과정 동안 겪었던 많은 어려움은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때의 감격으로 변모하였습니다.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조교수로 임용되어 간호학자로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기회를 비롯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보니 때마디의 어려운 고비를 지나면서 조금씩 성장하여, 어느덧 간호대학생 시절의 꿈을 이루어 2016년 3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신임교수로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꿈을 이루는 과정 동안 수많은 멘토와 좋은 동료들이 저를 자극하고 응원하였듯이, 저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교수님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간호학생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염관리는 제게 운명과도 같습니다. 에볼라나 메르스 사태와 같이 때때로 너무나 어려운 과제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일선 의료진들과 협력 하에 이론적 근거와 연구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은 제 평생을 다 바쳐 감염관리 교육 및 연구를 하고 싶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14년 가을 미국 달라스 병원에서 전신보호장비를 착용한 간호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전신보호장비를 착용하고도 왜 감염이 발생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였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미국감염관리 전문가협회(Association of Professionals in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APIC) 연구공모에 당선되어 2015년에 'Use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nsuring Safety (UPPEES) Study'를 피츠버그 대학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그 연구의 한국판 확장버전인 'UPPEES-Korea'가 '서울대학교 차세대 우수학자 초빙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에서의 의료진 개인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기관 관련감염의 예방,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중재 및 정책 비교, 의료진의 감염관리 기술 및 수행도 향상, 감염관리 관련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관리 등이 제 관심연구 분야입니다. 여러분께서 감염관리에 관심이 있고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신입교수 소개 : 윤주영 교수 (지역사회간호학)

안녕하세요. 지역사회간호학교실 신입교수 윤주영입니다. 1997년,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관악과 연건캠퍼스를 오가며 수업을 듣고, 실습을 했던 고향과도 같은 그 곳으로, 19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특히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그대로인데, 제 역할이 달라져 돌아오게 되니, 첫 학기를 맞는 요즘 출근하는 마음이 설렘 반, 두려움 반입니다. 하지만 환대해 주시는 교수님, 교직원분들과 강의 시간과 학교를 오가며 만나는 학생들의 환한 웃음 속에 하루하루 제가 다시 모교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행복한 요즘입니다.

저는 학부 시절부터 지역사회간호학 교수님이신 윤순녕, 이인숙 교수님께 많은 영감을 받아 지역사회간호학을 세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학부시절, 교수님들의 강의, 실습 및 여러 선배들의 조언 등을 통해 간호의 지경이 병원 등의 임상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보건으로 정책 결정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저도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정부기관에서 특히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한 실무자, 연구자로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교수로 일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

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장기요양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부합하는 정책 및 제도(특히, 재원, 전달체계, 서비스의 질 등)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의 연구는 한국 및 미국에서의 실무,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요양시설 모델을 개발하고,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 간호사로서, 연구자로서, 최근에는 교육자로서 걸은 제 삶의 궤적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인간 중심 케어(person-centered care)”입니다. 임상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는 제가 돌보는 “환자” 중심의 케어를, 연구자로 일할 때는 연구 대상자였던 지역사회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 중심의 개별화된 케어를, 교육자로서 일할 때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과정은 매 순간 근거 및 원칙에 충실하지만, 그 목적과 방향성은 항상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간호대학 소식 02

연구실 탐방 기초간호과학연구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기초간호과학 연구실은 최수미 교수님과 기초간호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연구실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그 동안 동물 실험과 향산화, 그리고 유전체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임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구를 수행중이다. 연구 주제는 피로, 통증, 감정장애, 영양불량, 수면 등 간호학의 기본 개념을 포함한다. 대상자는 뇌졸중환자, 대사증후군 환자, 암환자, 중환자이며, 최근에는 간호사, 건강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뇌졸중 환자와 건강한 노인의 피로, 통증, 수면 장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전체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수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신경외과, 노화연구소 그리고 서울아산병원 신경과와 유기적으로 다학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실은 매달 한번 랩 미팅을 갖는다. 교수와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만나 각자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하여 발표하고,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학생들은 본인의 연구 계획을 수정, 보완 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학생들도 아이디어를 얻거나 조언을 주게 된다. 특히 연구에 생소한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이러한 랩 미팅은 선배들의 노하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학술 모임이긴 하지만 함께 식사도 하고 서로의 근황도 이야기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와 병행하여 대학원생 연구모임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수면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학생들이 ‘수면영향 요인

에 관한 연구'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주제는 같으나 대상자가 다르다는 점이 서로의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병상련', '백지장도 마주 들면 닳다'는 속담이 저절로 떠오른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본 연구 모임이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지원하는 대학원생 학술모임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어 금년에는 좀 더 활발하고 풍성한 학술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간호과학 연구실에는 현재 박사 후 과정에 강수진 박사, 박사과정생으로 정영선, 김정하, 박세연, 박다인, 김용범, 백지현이, 석박통합과정으로 김씨래, 송지현이, 석사과정생으로 전보민, 이해림, 정수연, 송수진, 정지하가 수학하고 있다. 올해 신입생으로 김유나, 김민정, 황신영이 합류하여 더욱 활발하게 연구실 모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실에서는 매년 조금 특별한 모임을 갖는다. 바로 교수님 댁에서의 와인 파티인데, 해마다 봄이 되면 한강의 야경이 펼쳐지는 아늑한 집에서 졸업생과 재학생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한다. 교수님 방의 1호 박사인 이희주 교수님, 건국대 박명숙 교수님께서도 모임을 총괄해 주시고 호서대 이해영 교수님, 인하대 서민희 교수님, 중앙대 한기혜 교수님, 계명대 전상은 교수님, 한림대 김현정 교수님께서 오셔서 대학의 소식을 전해주시다. 올해는 최승혜, 김혜원, 한미라 교수님도 참석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상에서는 삼성 병원의 김경숙 팀장님, 아산 병원의 정영선 팀장님, 세브란스 병원의 김은성 수간호사님, 단국대 병원의 이현정 박사님, 서울대 병원의 허현숙, 송숙희 수간호사님께서 임상전문가의 소식을 전해 주신다. 학교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교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한 해 동안의 안부를 묻고 와인을 마시면서 서로 사는 이야기를 하다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올해도 청년 같이 싱그러운 오월이 되면 한강을 바라보며 어떠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원고작성 : 성인간호학 전공 박사과정 김용범〉



간호대학 소식 03

행복한 나눔 김금순 명예교수

2015년 10월 27일 간호대학에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김금순 명예교수(72졸)의 부조제막식이 있었다. 이날 간호대학 부조제막식 행사에는 양광희 동창회장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과 명예교수, 간호대학 교수 및 직원들이 참석하여 모교 발전을 위해 기부한 귀한 뜻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으며, 특별 순서로 75년 졸업생들의 합창공연이 이어지면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김금순 명예교수는 1986년부터 장학금, 건축기금, 간호대버스구입지원금 등 꾸준히 모교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있으며, 2015년 2월까지 우리대학에서 성인간호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한국재활간호학회 회장, 간호사 국가고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간호과학회장 시절 당시에는 우리나라 간호계의 숙원사업인 'Asian Nursing Research(ANR)'를 창간해 한국의 간호잡지가 SCI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으며, 현재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간호대학 소식 04

이송희 동문(50졸),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이송희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회장(50졸)이 '제 25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1991년부터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제 25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증서 수여식은 2015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리는 제 69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진행되었다. 김성재 학장을 비롯하여 박연환 부학장, 윤순녕 교수, 박현애 교수, 이소우, 이은옥, 김매자 명예교수, 양광희 간호대학 동창회장 등 간호대학 교수 및 동문들이 행사에 함께 참석하여 이송희 선생의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을 축하하였다.

이송희 선생은 195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간호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간호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송희 선생은 간호사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

학교병원 재건 및 간호행정시스템 개선, 글로벌 간호인력 양성 등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보건의로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 간호대학을 설립하여 전문간호사를 양성하고, 건강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제보건환경 개선에 공헌하였다.

2015년 10월 27일에는 간호대학 주관으로 축하연이 열렸다. 축하연에는 박명자 동문(56졸), 이소우 명예교수, 박영숙 명예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송경자 간호본부장 및 임직원, 세계기독교간호재단 관계자, 양광희 서울대 간호대학 동창회장 및 동창회 임원진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과 간호대학 교수들이 참석하여 이송희 동문의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하였다. 또한 75년 졸업생들이 준비한 합창공연과 후배들이 준비한 이송희 동문의 경력 및 업적 발표로 축하연이 더욱 빛났다.



간호대학 소식 05

2015학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진로캠프

2015년 11월 4일 간호대학에서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2015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진로캠프'를 개최하였다. 조현채 학생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진로캠프는 김성재 학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장 신순애 선배(87졸), 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팀장 김은진 선배(01졸),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 간호사 김은주 선배(08졸)를 모시고 다양한 간호영역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진로캠프에 참가한 재학생들은 선배들의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간호학도로서의 비전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간호대학 소식 06

SNU 자유학기제 지원 중학생 간호전공체험 프로그램

2015년 10월 30일 간호대학에서는 'SNU 자유학기제 지원 중학생 간호전공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서울 시내 중학교 1학년생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대학 교수, 조교, 재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간호학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들에게 간호학 전공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본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지원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진로 선택 및 설계를 지원하고 간호학 전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호대학에서는 간호학의 철학과 가치를 소개하고, 간

호학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서 간호학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며, 기초적인 간호술기를 직접 체험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였다.

참가자들은 간호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간호학박물관, 야인센터 등 간호대학 내 주요시설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둘러보고 CPR, 활력징후 측정, 무균술 등의 간호시뮬레이션 실습을 직접 수행해보면서 생생한 간호현장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선배와의 대화' 순서를 통해 간호대학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소개 및 입시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전공체험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다.



간호대학 소식 07

종합실기시험

2015년 11월 13일 졸업예정자 74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성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종합실기시험을 시행하였다. 2013년부터 시작된 종합실기시험은 3년째 시행되는 것으로, 2015년에는 본교 간호대학 교수들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노인환자 간호

모듈, 조현병 환자 간호모듈, 심장병 환자 간호모듈의 총 3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2015년에 시행된 종합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74명 중 64명이 1차 통과하였으며, 11월 27일 시행된 2차 평가를 통해 나머지 10명의 응시자 모두 통과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8

제 56회 간호사 국가고시

2016년 1월 22일, 서울 신천중학교에서 제 56회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는 졸업자 4명 및 졸업 예정자 73명을 포함하여 총 77명의 학생들이 국가고시에 응시하였다. 간호대학 학생회를 주축으로 한 10여명의 응원단들은 선배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든든한 아침식사로 김밥과 따뜻한 차, 간식 등을 제공하였고, 학교버스를 타고 고사장으로 이동한 4학년들은 후배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고장에 들어섰다. 김성재 학장, 박연환 부학장, 채선미 학과장, 서은영 함춘학생생활관장 등 많은 교수들이 신천중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하였으며, 4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을 보는 등

안 학생회 응원단은 점심으로 죽과 굴을 준비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97.4%의 국가고시 합격률을 보였다.



간호대학 소식 09

제 70회 전기 학위수여식

2016년 2월 26일 제 70회 학위수여식이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2,496명, 석사 1,786명, 박사 688명 총 4,970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간호대학에서는 학위수여자 총 98명을 비롯해 간호대학 학장, 부학장, 학과장과 학위 수여자의 지도교수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제 70회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73명, 석사 10명, 박사 15명이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최우수상을 받은 12학번 문정이 학생 외 31명이 상을 받았다.

〈제 70회 전기 학위수여식 수상자 명단〉

포상명	성명
최우수상(서울대총장상)	문정이
최우등상(5명)	홍수현, 이경민, 박소현, 김수연, 송희준
우등상(15명)	김소현(2012-10976), 김경훈, 이아림, 정화량, 유민정, 류아라, 최기원, 우민영, 김선애, 박효경, 김영비, 한송희, 장하영, 김지인, 김은미
간호대학장상	홍수현
서울대병원장상	이경민
간호대동창회장상	박소현
한국간호과학회장상	김수연
대한간호협회장상	송희준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 회장상	김소현
미래국제간호인재상	김경훈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상	권현정
공로상	김찬미(2012-10984)
대한기독교간호사회회장상	윤지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	이아림
시그마학회장상	최은정



간호대학 소식 10

2015학년도 동계 교수 워크숍

2016년 2월 15일 2015학년도 간호대학 동계 교수 워크숍이 간호대학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및 조교 포함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부/대학원 교육과정과 운영, 학생 선발과 학교생활”을 주제로 토의를 하였다. 김성재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채선미 학과장의 ‘간호대학 학생생활 만족도 결과보고’ 발

표가 있었다. 이어서 황보영 교수가 ‘간호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교과과정 및 학위논문 규정 및 절차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후 두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박연환 부학장의 간호대학 학부 교육과정 운영 및 선발과 교수 업적평가 기준 검토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학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간호대학 소식 11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협의회

2016년 2월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가든뷰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의 협의회가 있었다. 김성재 학장의 개회로 회의를 시작하여 간호대학과 간호부문에서 지난 학기 활동을 차례로 보고하였다. 또한 1학기에 있을 양 기관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상호간의 협력을 다졌다.



간호대학 소식 12

제 5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2016년 3월 4일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간호학과 3학년 6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 5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개최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나이팅게일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촛불을 점화하고 선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성낙인 총장, 박노현 연구처장, 강대희 의과대학장, 이재일 치의학대학원장, 박찬욱 사회과학대학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류인철 서울대치과병원장, 송경자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 양광희 간호대 동창회장, 박중신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김성준 의과대학 학생부학장, 안석준 치의학대학원 교무부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한 본교 교수 및 많은 학부모와 동문 선·후배들이 함께하여 학생들을 축하해 주었다.



간호대학 소식 13

샤인센터(SHINE Center)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 개최

2016년 1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샤인센터(Simulation-based, Humanity-Integrated Nursing Education Center)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의 종합 실습센터인 샤인 센터가 개설된 2012년 이후의 다년간 교육경험을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국내 간호학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내 첫 교육 과정이었다.

김성재 학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은 2개의 교육과정인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뉘어 각각 1일간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기본 과정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의 개요와 기초에 대해 다루었으며, 심화교육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의 경험이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술기 교육 이상의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았다.

이번 양일간의 시뮬레이션 교육에는 기본 과정 25명, 심화 과정 19명

으로 총 44명이 참가하여 수료하였다. 본 과정의 수료생들은 임상에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해주어서 고맙다는 의견과 함께 보다 심도 있고 긴 학습시간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열의에 찬 반응들을 보였다.

능숙한 간호술기 뿐만 아니라 통합적 사고와 전인적인 관점을 가진 유능한 간호인재 양성을 중시하는 최신 간호경향에 발맞추어, 앞으로 샤인센터의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이 간호현장의 다양한 상황들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본다.

본 과정은 샤인센터장인 서은영 교수가 주임 교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채선미 교수, 최희승 교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샤인센터 시뮬레이션 교육은 연 2회 이상 시행할 예정으로 오는 2016년 6월에 2차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간호대학 소식 14

간호대학 환경개선

○ 본관 4,5층 천장 보수공사

- 일시 : 2015.11.15.~11.30.
- 공사내용 : 천장텍스 철거 후 행거볼트 및 캐링 보강, 천장 조명 기구 고정작업

○ 제2연구동 음향장비 환경개선공사

- 일시 : 2015.12.21.~12.25.
- 공사내용 : Wireless Mix, Audio Mix, Main power Amp, Sub power Amp 등 교체

○ 제2연구동 강당 및 본관 강의실 의자 세탁 작업

- 일시 : 2015.12.30.
- 작업내용 : 본관 교수회의실, 102호, 103호 강의실 의자 세탁, 제2연구동 강당 의자 세탁

○ 간호대학 실험실내 인화성 가연성 화학물질 보관 캐비닛 설치

- 일시 : 2015.12.20.
- 설치장소 : 본관 206호 서무 행정실, 본관 307호 기초간호과학 실험준비실, 제2연구동 324호 기초간호과학실험실

○ 본관 조교실 및 한국인노파데이터센터 이전작업

- 일시 : 2016.1.30., 2016.2.1.
- 작업내용 : 본관 415호 한국인노파데이터센터 → 제2연구동 212호로 이전, 본관 403호, 404호 조교실 → 본관 415호로 이전

○ 본관 교수연구실 및 제2연구동 대학원생 연구실에 소화기 설치

- 일시 : 2016.2.25.
- 설치장소 : 본관 39개, 제2연구동 48개 연구실에 소화기 설치

○ 본관 2층 모유수유실 설치

- 일시 : 2016.2.25.
- 내용 : 본관 2층 승강기 앞 모유수유실 설치
- 개방시간 : 월~금 09:00 ~ 18:00
- 비치물품 : 냉장고, 살균건조기, 유축기, 수유쿠션, 쇼파, 탁자



〈모유수유실 - 수유쿠션 및 유축기〉

○ 공사 추진일정

- 본관 1층 학생휴게실 리모델링 예정
- 본관 4층 여자화장실 보수 공사 예정



〈모유수유실 - 살균건조 및 냉장고〉

간호대학 소식 15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 활동

○ 2년제 간호인력 신설 폐기를 위한 투쟁 선포식

2015년 10월 30일 전국간호대학학생연합과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2년제 간호학제 신설 폐기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에서 간호대학생과 간호사 5,000여명이 모여 2년제 간호학제 신설 폐기를 촉구하였다.

전국간호대학학생연합 오완택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간호대학생의 미래를 암흑으로 내모는 악법”이라며 전국의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반대 입장서를 발표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또한 집회에 참석하여 2년제 간호학제가 국민건강권과 간호사들의 노동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제기하고 의료법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이후 박영임 한국간호교육학회장, 최진선 송파구 간호사회 회장, 연세대 간호대학생 학부모 변재훈 씨가 2년제 간호학제 반대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선포식에서는 2년제 간호인력 양성 의료법 개정안 폐지 투쟁 결의를 위해 서울대 간호대학 김성재 학장의 삭발식이 거행되었다. 김성

재 학장은 “2년제 학제 신설, 이 말도 안 되는 시대역행적 발상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 한 사람의 선배로서 후배 앞에서, 한 선생으로서 지난 31년간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이생애 간호를 만난 것에 열광하고 감사하는 한 사람의 간호사로서 뼈아픈 반성과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하면서 “2년제 학제 신설이 완전히 폐기되는 그 날까지 갑시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며 담담히 삭발에 임하였다.

○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 협의체 활동 보고

2015년 12월 9일 저녁 6시경 2년제 간호인력 신설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3년간의 협의체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 협의체는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 그리고 한국 간호의 미래를 위해 2년제 간호인력 신설을 저지하고자 노력해왔다.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률 검토, 선진국 사례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2년제 간호인력이 환자 안전에 미치는 위험을 정부, 국회의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명하였다.

2015년 2월 24일 서울역 광장에 5,000여명이 모여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결의하였고, 2015년 10월 30일에는 2년제 간호학제 폐기 총력 투쟁 선포식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간호사들의 강한 결의를 보였다. 그 결과 2015년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학원과 특성화 고등학교 등으로 명기하여 2년제 간호학제가 신설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18년부터는 간호조무과 개설을 허용한 규제개혁위원회 부칙의 효력 또한 없어질 예정이다.

간호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어렵게 일구어낸 쾌거인 만큼 앞으로 간호사들이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더욱 앞장서며 전문간호직의 발전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해본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1

학부생 글쓰기 특강

2015년 10월 26일 교수학습개발센터와 간호과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여 학부생 63명을 대상으로 '리포트 작성의 기초와 인용법' (홍혜리나,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을 통해 주제 선정과 개요 짜기, 리포트의 구성, 글쓰기의 윤리와 인용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학부생들의 글쓰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2

통계특강

2015년 10월 30일 교수학습개발센터와 간호과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위한 SPSS통계실습' (박민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특강을 시행하였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3

대학원생 학술모임 결과 발표회 개최

2015년 11월 18일 대학원생의 간호학문 탐구를 지원하고, 연구능력 향상을 돕기 위하여 시작한 대학원생 학술모임 결과 발표회를 시행하였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총 5팀의 학술모임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학술모임명	발표내용
간호와 사회(홍경진 외 7인)	간호와 사회: 간호의 변천사, 간호관련 정책이슈 외
아동간호세미나(송민경 외 6인)	아동 호스피스, 아버지 대상 간호중재에 대한 SR 진행과정
표준화환자 역량강화 학술모임 (김수미 외 5인)	표준화 환자에 대한 문헌고찰, 표준화 환자의 역할경험에 대한 인터뷰 등
여성건강 수호대(김효정 외 5인)	여성건강연구: 이론과 적용
리더스클럽(이수진 외 4인)	'The Future of Nursing: Leading Change, Advancing Health' 고찰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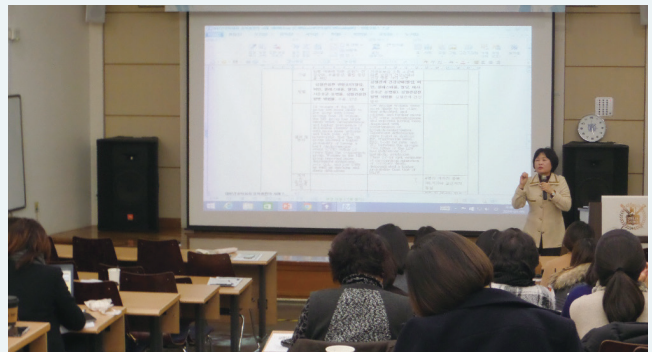
2016년 겨울방학 특강

2016년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간호대학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세미나와 SPSS통계실습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세미나

– 일시: 2016년 1월 5일 13:00~16:00

강의 내용	강사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	김옥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판윤리에 대한 이해	김혜원(서울대학교간호대학 교수, 간호과학연구소장)
서울대학교 IRB 심의	김효현(연구윤리위원회 강사)



<간호대학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세미나>

○ 간호대학 대학원생을 위한 SPSS 통계실습 특강

– 연자: 하여진(서울대학교 교육통계학 박사)

– 일시: 2016년 1월 12일 10:00~16:30

강의 내용	
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 및 기술통계	– 설문지 코딩, 데이터클리닝, 빈도분석, 기술통계, 데이터탐색
SPSS를 활용한 추리통계1	– t검정, 분산분석, 카이제곱검정, 상관분석
SPSS를 활용한 추리통계2	– 회귀분석, 요인분석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5

2016년 상반기 수요학술세미나 안내

간호학 뿐 아니라 타학문의 최신지견에 대한 교내·외 강사들의 특강을 통해 간호학적 지식은 물론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반기 수요 학술세미나가 2016년 3월 9일을 시작으로 5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날짜	주제	연자
3월 9일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간호교육 전망 - 평양을 다녀와서	김성재(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3월 23일	공예: 생활 속 사물	조수현(금속공예가)
4월 6일	현대공예작가와 작품세계	조수현(금속공예가)
4월 27일	법의학의 현재와 미래	유성호(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5월 25일	기후변화와 우리의 과제	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3월 9일 수요학술세미나 -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간호교육 전망〉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6

2016학년도 대학원생 학술모임
지원 선정결과

2016년에도 대학원생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3월 4일부터 25일까지 학술모임 지원서를 모집하였다. 총 9팀 중 학술모임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결과물이 기대되는 5팀을 선정했다. 선정된 팀은 10월까지 학술모임을 진행하고 2학기 수요학술세미나에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선정된 학술모임은 다음과 같다.

No	전공	구성원	학술모임명
1	성인	김용범 외 5명	수면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2	간호정보	이지산 외 5명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본 Health IT의 최근 트렌드
3	간호관리	장형은 외 4명	간호조직문화에 대한 연구
4	지역사회	김다은 외 4명	장기요양시설 입소노인 기능저하 예방 중재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5	정신	한슬기 외 5명	통합적 문헌고찰 작성법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7

검무연구원 연구동향세미나

간호과학연구소 검무연구원인 간호대학 교수들의 최근 연구내용을 소개하는 연구동향세미나가 5월 중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날짜	주제	연자
5월 4일	지역사회 장기요양과 인간 중심 케어	윤주영 교수
5월 11일	간호와 감염관리	강자현 교수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8

2016학년도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개최

다양한 전공분야의 외국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간호 전문지식은 물론 최근 학계 동향을 살펴 볼 수 있는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6월에는 UCSF School of Nursing 의 Kathy Dracup 교수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며, 7월에는 보건통계 전문가인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의 박창기 교수를 초청하여 대학원 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통계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9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11월 1일 국내·외 간호학자 및 간호전문가들을 초청하여 “Advances in Global Nursing Education and Leadership” 이란 주제로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간호대학 국제학술세미나를 호암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날인 11월 2일 “Innovative Nursing care and Technology”란 주제로 제 11차 간호대학 국제학술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학부 소식 01

2016학년도 제 25대 학생회 - 임팩트(Impact) - 발족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는 학생들의 학업과 다양한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로 “학생회”가 있다. 학생회는 매년마다 신입생 새내기배움터, 간호사 국가고시 응원, 연건캠퍼스 축제 운영, 교수학생간담회,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간호대학 학생들의 지지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016년 제25대 학생회는 학생회장 13학번 조은영, 부학생회장 14학번 윤현경을 필두로 약 20명의 집행위원회가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복지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새로 선출된 학년대표 조서현, 신수빈, 김지현, 조은비와 4개 반의 대표인 김성아, 차혜진, 김수빈, 천준범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비의 사용을 감독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간호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학습지원국, 학생복지국, 문화자치국, 사무국 이렇게 총 4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국들은 2016년의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다. 먼저 문화자치국에서는 총 엠티,

개강파티, 대동제 등 모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간호대학 동아리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습지원국은 간호대학 학생들의 학업과 학과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스터디 그룹 지원, 전공과목 오리엔테이션, 생활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복지국은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NMP(Nursing Mentoring Program), 과방 관리,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그리고 이번 25대 학생회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공 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은 학생회비 관리, 학생회실 관리, 커뮤니티 관리 등을 진행하는 학생회의 핵심적인 부서이다.

제 25대 학생회는 간호대학 학생사회에 크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자 ‘임팩트’라는 선본 이름을 가지고 출범했으며, 연건캠퍼스 상점 할인 혜택 확대, 연건 가이드라인 제공 확대 및 ‘전국 간호인의 날’ 행사 시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다.

학부 소식 02

제 25대 학생회 활동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 25대 학생회는 201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당선 이후 간호대학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금까지 학생회가 진행한 주요 사업들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수시 신입생 환영회

이번 수시 신입생 환영회는 관악캠퍼스에 있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과방에서 진행하였다. 선, 후배 간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생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아이스브레이킹 게임을 진행하였다. 신입생들끼리 7~8명으로 조를 나누고 거기에 재학생 선배 2명이 멘토가 되어 관악캠퍼스의 이곳 저 곳을 돌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도 진행하였다. 이후 함께 교내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신림동 녹두거리로 나가서 2차 뒤풀이까지 성황리에 마쳤다.



2. 연건가이드 북 개정판 제작

연건가이드북은 2015학년도 24대 학생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연건캠퍼스에 진입하여 적응하기 힘든 2학년과 몇 년을 다녀도 아직 연건을 잘 모르는 재학생들을 위해서 간호대학 시설과 연건캠퍼스주위 맛집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이다. 25대 학생회에서는 이에 더불어 공부하기 좋은 카페, ppt 제작 요령, 시험 후 스트레스 풀기 좋은 장소, 새로운 맛집 등을 넣어서 개정판을 제작하였다.



3. NMP(Nursing Mentoring Program)

NMP는 간호대학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관악캠퍼스에서 생활하는 1학년들과 2, 3, 4학년을 함께 묶어서 모임하고 친목도모도 하면서 고민상담도 할 수 있는 장이다. 각각 3~4명의 조를 구성하여 활동사진을 올리고 다른 조와의 합동 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한강 치맥, 놀이공원, 벚꽃 구경 등 매년 더 재미있고 새로운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4. 전공 멘토링

NMP가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라면 전공 멘토링은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3, 4학년의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간호대학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총 17~19학점을 채워서 들어야하기에 학교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겪게 된다. 전공 멘토링은 이 과정을 경험한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즐겁고 알찬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신청자가 약 50명 정도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번성하여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5. 생활강연 - Excel 강연

학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연사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생활강연이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다. 3월에 시행한 첫 번째 주제는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Excel강연'이었다. 이외에도 요가, 예술치유, 레크리에이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 25대 간호대학 학생회에서는 가장 최우선으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수님들과의 논의나 학생회 회의를 통해서 실현가능

한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도움을 주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 간의 교류, 학술을 위한 행사도 주축하고 있으며, 타 간호대학 학생들과 만남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간호인으로서 임상에 나가서 겪을 수 있는 상황과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생이기에 할 수 있는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길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 25대 학생회의 즐겁고 창의적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간호대학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더욱 풍성해질 것을 기대해본다.



학부 소식 03

2016학년도 간호대학 합격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16학번 새내기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새내기 새로 배움터는 경기도 청평에 위치한 켄싱턴 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 준비를 위해 꾸려진 새로 배움터 준비위원회 구성원들 외에도 많은 선배들이 동참하여 선후배들 간의 우애가 끈끈하게 생겨난 행사였다. 첫째 날은 교수님 소개 및 인사와 채선미 학과장님과 황보영 교수님의 강연으로 새내기들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재학생 선배들의 강의도 진행되어 아직 낯설지만 한 새내기들이 수강신청, 학점 관리, 교과 외 활동 등 대학 생활의 실질적인 팁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 일정으로는 각 반 별로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진행하여 선배들과 후배들끼리 어색함을 깨고 자유롭게 친목도 모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후에는 조를 편성하여 포스트게임을 진행하여 새내기들의 춤 실력과 끼를 분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며, 다른 반 동기들과도 협동심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

간을 보냈다. 둘째 날에는 이번에 새롭게 1학년들의 전공수업을 담당하시게 될 황보영 교수님의 My nursing story 강연이 진행되었다. 교수님께서 간호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간호학을 배우면서 느낀 점, 유학을 하면서 경험했던 교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받을 수 있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운동회가 진행되었고 저녁에는 새내기들의 장기자랑과 재학생 선배들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끼를 지닌 간호대학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각종 동아리들의 춤, 힙합 공연, 합창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체적으로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도 선배들은 과도한 음주나 위험한 활동들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2박 3일 동안 큰 사고 없이 간호대학 합격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원고작성 : 간호대학 학생회 사무국장 박광훈〉



학부 소식 04

동아리 탐방 : 연건 JOY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대학 14학번 박윤서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간호대학 동아리 연건JOY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건 JOY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spell JOY' 의 JOY spirit을 추구하는 선교단체 JOY의 서울대학교 연건지부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연건 JOY는 학기 중에는 매주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관악 JOY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JOY는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둘 때 참 기쁨이 있다는 JOY 정신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믿는 혹은 믿고자 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앙적 성장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JOY라는 단어의 원래 뜻처럼 기쁘고 즐겁게 놀러 다니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동아리입니다. 연건 JOY는 매주 월요일 6시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 전 함께 저녁을 먹고, 동아리 방에서 찬양과 간사님의 설교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정공을 찌르는 말씀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는 애프터로 헤화 맛집 탐방을 갑니다. 과제와 팀플, 실습으로 지친 간호대학 학생들을 위해 애프터 장소는 주로 달달한 케이크집이나 맛있는 치킨 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이 있는 월요일에는 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치킨을 사들고 소풍을 가기도 합니다.

방학 중에는 학기 중에 시간에 쫓겨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을 하고 있습

니다. 대부분 기숙사에 사는 연건 JOYer들을 위해 홈 메이드 음식으로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연건 JOY MT를 열고 있습니다. 종종 '연건 홈커밍 데이'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졸업한 연건 JOYer들을 초대하여 졸업 이후의 진로와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건 JOY의 장점은 간호대학 동아리이지만 관악 JOY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관악에 있는 학생들과도 교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기 중에는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는 1박 2일의 복음캠프, 새로 온 JOYer들을 알아가고 즐겁게 노는 N-Joyer MT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는 전국 수양회가 있어 전국의 JOYer가 모여 좋은 설교와 말씀 강해, 찬양 집회, 레크레이션 등을 하며 5박 6일을 함께 보냅니다. 학기 중에 지쳤던 심신을 말씀으로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선후배와 포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춘천으로 1박 2일 MT를 떠나 물놀이와 캠프파이어를 하며 JOYer 간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돈독한 선후배를 찾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팍팍한 간호대학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공동체를 찾으시는 분들 혹은 하나님이 궁금하신 분들, 동아리를 찾으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학부 소식 05

학생 이야기 10th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를 참가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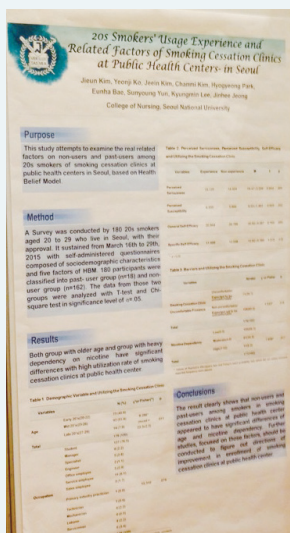
학부 졸업생 배은하

저에게 2015년은 앞으로 간호학도로서의 큰 기대와 설렘을 안겨준 해였습니다. 특히 국제간호학술대회(INC)의 포스터 발표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간호학계에 한 발을 내딛는 소중한 경험을 한 해였습니다. 2015년 5월 28일, 간호연구실습 수업을 통해 1년 동안 준비했던 연구 발표회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편의 논문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모였던 연구 조원들을 볼 수 없음에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학기 중에 소진된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을 보내던 중 교수님께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간호학술대회의 학부생 포스터 세션에 참가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학부생의 논문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출전하기에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조원들과 고심한 끝에 대회를 나가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될 테니 예선전에 초록을 제출해보기로 하였습니다.

INC 학부생 포스터 세션 예선전에 제출했던 논문은 〈20대 흡연자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경험여부와 관련된 요인, 서울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였습니다. 2015년 초 담뱃값 인상이 큰 이슈가 되면서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이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금연 성공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의 금연 시도율이 가장 저조하다는 논문 결과를 토대로 연구 대상자를 20대 흡연자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 올바른 금연습관 형성은 중년기나 노년기 이후의 금연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결과를 바탕으로 20대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건강신념모델

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20대 흡연자 180명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경험여부와 상관된 요인을 탐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개인은 건강신념 틀에 의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이라는 건강행위를 한다고 보고, 이에 5가지 항목(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장애성, 자아효능감, 행동의 계기)을 바탕으로 연구에 맞게 건강신념 모델을 수정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추가하여 개념틀을 구성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대상자 중 10%가 금연클리닉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연령과 니코틴 의존도가 금연클리닉 이용경험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용 경험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연클리닉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선전에 제출했던 초록이 합격됐다고 연락을 받고, 2015년 10월 22~23일 서울 The K 호텔에서 개최된 국제간호학술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연구한 논문을 국내외 저명한 간호학자들,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이기에 큰 기대와 설렘을 안고 학술대회에 임하였습니다. 비록 수상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대회에 참가하였다는 경험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기회는 경험을 낳고 경험을 통해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하는 마음가짐은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회는 흔히 고생으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명언처럼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했던 것이 간호학문에 한 발을 내딛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학원 소식 01

2015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간호학 석사(10명)

김용미	당뇨 환자의 극복력, 가족지지와 질병적응의 관련성
정윤아	유도분만 시행 여부에 따른 임신부의 분만진행과정과 분만결과 및 분만만족도
최은정	중환자실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공감피로와 공감만족에 미치는 영향
권태균	정신과 신규 간호사를 위한 조현병 시뮬레이션 모듈의 개발 및 적용
김서연	임원 산모의 낙상위험 요인
이미선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식하는 불안사정지표의 중요도, 불안사정과 중재에 대한 신념 및 불안간호 중재빈도
장지은	초기 치매 환자의 가족간호제공자를 위한 정서중심 개별중재의 효과
정혜실	청소년 우울 관련 소셜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온톨로지 개발 및 평가
최성실	일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 주보호자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태도
홍은지	교대근무 병사의 건강증진행위 관련 요인 : 피로를 중심으로

간호학 박사(15명)

박인숙	간호업무량과 간호관리자의 사회적지지, 간호사의 심리사회적 건강, 직무만족과의 관계
방은주	노인요양시설 간호실무표준 개발: 일상생활활동장애, 영양부족, 요실금
강수진	주간호자가 인지하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주간호자의 삶의 질 구조모형
차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비용효과분석
김지은	북한의 간호교육체계 분석 및 통일단계별 통합방안
강경화	문제음주자를 위한 맞춤형 동기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김동옥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자가관리 지원 효과
최선임	병원간호사의 세대경험 분석-포커스 집단 면접 적용-
김수미	신장이식 수혜 청소년의 질병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김영란	우리나라 임부의 임신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김지은	0-6세 아동 과체중·비만의 성인 대사증후군 위험에 대한 영향: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이경아	보건진료소의 비용편익분석 및 기술적 효율성 평가
오희선	치매환자 주부양자의 통합성 향상을 위한 요가프로그램의 효과
전미정	간이식 수혜자의 자기관리 구조모형
최한나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정보 이용이 건강증진 행위의도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학원 소식 02

2016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2016학년도 간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석사, 석·박통합, 박사 신입생 60여명이 함께 하였으며, 전체 오리엔테이션 이후 신입생들은 각 전공별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원생

으로서 앞으로의 비전과 연구방향, 진로에 대해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6학년도 대학원 신입생은 총 68명이며, 세부 전공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정	성인간호학	모아 ·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 · 간호시스템
석사 (30명)	성인간호학 17명	모성간호학 2명 아동간호학 4명 정신간호학 4명	간호관리학 2명 간호정보학 1명
석·박통합 (17명)	성인간호학 4명	모성간호학 2명 아동간호학 2명	지역사회간호학 3명 간호관리학 4명 간호정보학 2명
박사 (21명)	성인간호학 9명	모성간호학 2명 아동간호학 2명 정신간호학 2명	지역사회간호학 1명 간호관리학 3명 간호정보학 2명



대학원 소식 03

대학원생 이야기-UCLA 노인전문간호사과정 연수

성인간호학 노인전문간호사과정

강은경, 정동연, 한아름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단기병동 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차 간호사이자, 성인간호학 노인전문석사과정을 수료한 정동연입니다. 노인전문간호사 과정의 마지막 실습과목인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um and Hospital and Community' 를 UCLA에서 하게 되어 그 연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습 첫날, UCLA 간호대 학장 Dr.Nyamathi와 Ruiz교수를 만나 서로의 소개를 하고 저희 실습생 3명의 관심사와 실습에서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실습기간 동안 총 5번의 수업이 있었는데 2번은 UCLA 노인전공학생들과 함께 들었고, 3번은 저희 실습생들과 강사의 토론회 수업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한 수업의 내용은 한국의 수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학생과 교수님이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수업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셋이 듣는 강의 중 첫 번째 강의는 Lauren Arenson이 American culture에 관해서 얘기해주었는데 아는 내용이었지만 굉장히 재밌게 강의를 진행해서 수업 내내 웃으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UCLA medical center 응급실에서 응급전문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Barbara Demman이 미국의 간호사제도를 설명해주었고, Young Kee Markham은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현재 한국 전문간호사들의 현실이 미국에 전문간호사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와 다르지 않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하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노인들이 자녀에게 버림을 받고 homeless로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많이 울었다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그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도 하셔서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뭉클했습니다.



실습기간동안 미국의 의료시설 방문기회는 총 세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미국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병원인 VA(Veterans Affairs)에 있는 Geriatric center였습니다. 이곳은 노인센터 외래이고 다학제적인 진료로 자부심이 강한 곳으로 교수, 전임의, 전공의, 약사, 전문간호사, 학생들이 환자 진료 전에 다 같이 모여 저널리뷰와 환자 리뷰를 하며 토의를 했습니다. 이날 아쉽게도 노인전문간호사가 결근을 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대신 전공의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환자 한명에 한 시간가량 소요될 정도로 환자와 보호자의 모든 이야기를 경청해서 듣고 꼼꼼히 사정하며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UCLA medical center였습니다. UCLA campus 끝에 있는 병원으로 그동안 소문으로 들었던 미국의 첨단 의료시설과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Magnet 인증을 받은 병원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병원 전체 540병상이 모두 1인실로 되어있었고 일반병실의 각 방에 patients monitor와 컴퓨터가 있어서 병실 안에서 환자를 사정하면서 바로바로 charting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중환자실의 간호사 스테이션이 가운데 위치해있고 스테이션을 빙 둘러서 환자 병실이 있어서 스테이션에서 환자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투약 시스템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정맥주사로 주입되는 약들은 약사들이 생리식염수나 포도당수액에 약물을 mix를 하고 응급카트에 있는 응급약물세트를 사용하면 약국에서 다시 봉인을 해서 병동에 운반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무시스템도 한국과 달랐는데 기본 7A-7P의 2교대이고 주 3회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Day, Night 두 개의 근무가 있고 처음 입사하고 1년 정도는 Day와 Night근무를 모두 하지만 이후에는 Day 또는 Night 근무 중 하나만 택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12시간 근무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인데 이 시간만을 담당해

주는 간호사가 따로 있어서 담당 간호사는 1시간을 온전히 휴게시간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환자의 비율은 일반병동은 1:5, 중환자실은 1:1이었습니다. LVN(Licensed Vocational Nurse)이 환자의 기본적인 Vital Sign, BST 등을 체크를 하는 점도 한국과 달랐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첫 번째 방문했던 VA에 있는 Community Living Center라는 Nursing home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겹쳐서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바쁘게 환자를 보는 중에 전문간호사들은 처방권이 있어 필요한 오더를 직접 넣어서 환자를 적절히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으면서도 길었던 UCLA 실습을 통해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의료시스템과 보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점을 배워서 한국에 맞게 도입한다면 한국의 의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학원 소식 04

연구지원금 수여

본교 대학원생 중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서를 발표하여 연구비 지원을 받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원금	수여자 이름	전공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한마음장학금 최우수상(150만원)	이주연	정보 박사수료

대학원 소식 05

교수임용

본교 대학원생 중 2016년 교수 임용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담당 교과목)
부산대학교	하이경	성인간호학
조선간호대학교	장선미	건강사정실습, 국제간호
울지대학교	전미경	성인간호학



대학원 소식 06

국제학술대회 참석명단

본교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The 10t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ASIA/OCEANIA 2015 Congress (2015.10.19.~22.)	
· Development of Roles of Gerontological Nurse Practitioner in the Senior centers	고하나 (성인 박사과정)
10th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 (2015.10.22.~23.)	
· Development of an Individual Motivational Enhancement Program(IMEP) for alcoholism prevention	강경화 (정신 박사수료)
· Integrative Review of Intervention Studies on prevention for Alcoholism: Now and Future	
· Necessity of the sexuality education of the women with cancer	강샘이 (모성 석박통합)
· Quality of Patient-Centered Nursing Care among Breast Cancer Women	강지영 (성인 박사과정)
· Sleep Quality is correlated with Heart rate variability, Depression, Anxiety and Fatigue in healthy Korean adults	김주아 (성인 박사과정)
· The effects of a cervical cancer Prevention Program for Teenage Girls	이다빛 (모성 석박통합)
· The Adaptation Experiences of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ICD) Recipients	이선미 (성인 석사졸업)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detailed clinical models for nursing actions in perinatal care	이주연 (정보 박사과정)
· Development of and Ontology for Low Fertility for Social Big Data Analysis	이지현 (정보 박사과정)
· Mobile applications for managing metabolic syndrome	전은주 (정보 박사과정)
American Psychiatric Nurses Association 29 th Annual Conference (2015.10.28.~31.)	
· Mental health literacy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and teachers in Korea	고희성 (정신 박사과정)
Games for Health Europe(GFHEU) 5 th annual conference (2015.11.2.~3.)	
· Development of the Smart Phone Serious Game for managing the childhood obesity and forming diet habits, named "With-Mom Childhood Obesity Management(WMCOM)"	박미화 (정보 박사수료)
Translational Bioinformatics Conference (2015.11.5.~9.)	
· Evaluation of the content coverage of an adolescents' depression ontology	정혜실 (정보 박사과정)
AONS 2015 Conference (2015.11.19.~21.)	
· Caregiver Burden, Coping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Gender among Spouses of Cancer Patients Undergoing Chemotherapy	김서연 (성인 석사졸업)
· The level of Fighting Spirit and Adaptation among patient with Colon Cancer according to the Income State.	서지영 (성인 박사과정)
·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f Oncology Nurses' Clinical Experience in a Chemotherapy Ward in Korea	우윤정 (성인 석사졸업)

동창회 소식 0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30, 40, 50, 6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행사

2015년 10월 8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와 간호대학에서 졸업 30, 40, 50, 6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동문 약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동문들은 간호대학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캠퍼스 투어를 통해 변화하고 발전된 학교의 모습을 둘러보았다. 이후 연건 캠퍼스에서 동창회가 마련한 풍성한 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번 행사는 기별 대표들을 중심으로 30, 40주년 동문의 축하공연과 학교생활 영상 상영 등 동문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순서들이 진행되었다. 간호대학 밴드 동아리 '소리의' 공연을 통해 선배들의 모교 방문을 환영하며, 서울대 간호인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동창회 소식 02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홈커밍데이 및 가족친목대회

2015년 10월 18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주관으로 관악캠퍼스에서 홈커밍데이 및 동문가족화합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동창회에서는 1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가하여 오전에는 박물관을 관람하고 오후에는 다채로운 환영 행사와 경품 추첨에 참여하였다.

동창회 소식 03

2015년 2차 고궁나들이

2015년 10월 30일 간호대학 동창회에서는 제2회 고궁나들이로 창경궁을 방문했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복잡한 시내 속의 한적한 고궁을 찾아 옛 선조의 정취를 느끼며 동문들과의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 소식 04

동문 동정

- 김연희(85졸) :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원장 승진
- 박정희(78졸) : 마산대학교 간호대학장 취임
- 김희걸(82졸) : 간호정우회 회장 선출
- 설미이(96졸) :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초대회장 선출
- 주세진(82졸) :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 취임
- 조경숙(79졸) : 가천대학교 간호대학장 취임
- 이인숙(77졸) :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취임
- 김성재(81졸) : 정신간호학회 회장 선출
- 이경숙(81졸) : 기초간호학회 회장 선출
- 김영임(77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취임
- 김정희(89졸) : 제주대학교 간호대학장 취임
- 구미옥(78졸)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장 취임
- 윤순녕(73졸)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퇴임
- 이선옥(73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퇴임

동창회 소식 05

2016학년도 1학기 동창회 장학금 지급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에서는 2016학년도 1학기 동창회 장학금 746만원을 모교 재학생 6명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5명(총 11명)에게 지급하였다. 장학금 수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학금명	구분	성명	금액
동창회 장학금	박사	이진선	100만원
최애옥(50졸)장학금	석사	황민화	100만원
84년 졸업동기회 장학금	석박	정예슬	100만원
이귀향 장학금	석박	김영주	80만원
이윤경(69졸) 장학금	석박	이슬아	60만원
이정자(63졸) 장학금	학사	김지현	60만원
신정희(79졸) 장학금	학사	임수민	60만원
김남련(56졸) 장학금	학사	한혜인	50만원
김기주(70졸) 장학금	학사	김혜문	50만원
김현희(63졸) 장학금	학사	백수경	50만원
백월량(63졸)장학금	학사	임선우	36만원

동창회 소식 06

신년하례회

2016년 1월 8일 오후 3시에 간호대학 본관 102호에서 신년하례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양광희(72졸)동창회장과 김성재(81졸) 학장을 비롯하여 역대 동창회장과 명예교수, 동창회 임원과 모교교수 선·후배동문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서은영 상임이사의 사회로 양광희 동창회장의 신년인사와 김성재 학장의 신년축사가 있었다.

양광희 동창회장은 신년인사에서 지난 2015년 동창회에 보내주신 동문들의 성원을 일일이 열거하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동창회, 따뜻한 함을 전하는 동창회’로 만들기 위한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자랑스러운 동문들의 소개와 함께 선배님들의 신년덕담이 오고 갔다.



동창회 소식 07

2016년 상반기 주요 행사안내

◆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

- 일시 및 장소 : 4월 12일(화), 간호대학 강당
- 세부일정
 - 14:00 ~ 16:00 바자회
 - 16:00 ~ 17:00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
 - 17:00 ~ 18:00 동창의 날

◆ 동창회 대표자회의(기, 지부, 단체)

- 일시 : 7월 13일(수) 오후 4시
- 장소 : 간호대학 본관 102호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 2015년 9월 1일~2016년 2월 29일

학사동문 및 간호대학 교수			
간호대학 65년 졸업동기회	간호대학 75년 졸업동기회	간호대학 85년 졸업동기회	간호대학 2016년 졸업동기회
간호대학 교수협의회	서울의대 간호대 합창단	고진강(1998)	김순덕(1965)
김영아(1988)	박달이(1978)	방정자(1965)	송미순(1984)
유선주(1989)	윤순녕(1973)	이남주	이송희(1950)
이은옥(1963)	임영자(1965)	전길자(1965)	정명숙(1965)
정현명(1992)	조동란(1970)	조성현(1993)	채선미
최나영(2015)	최희승	탁성희(1990)	홍명희(1965)
황보영(1996)			

교직원			
강상모	전수진	정궁식	허현희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CM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서는 간호대학 홈페이지 또는 간호대학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농협 079-17-065324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신한 100-023-643537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문의처 : 02-740-8802

-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